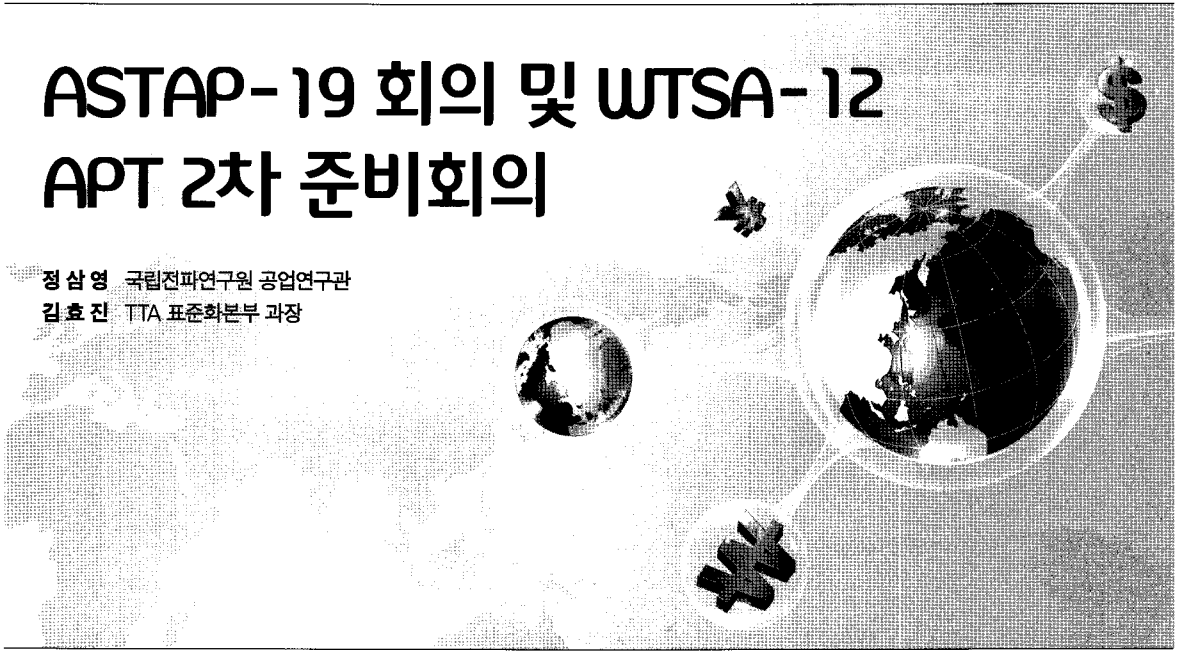


ASTAP-19 회의 및 WTSA-12 APT 2차 준비회의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공업연구관
김효진 TTA 표준화본부 과장



1. 머리말

ASTAP(APT 표준화 프로그램)포럼은 APT(아태전기통신협의체)의 8개 작업 프로그램의 하나이며 아태지역의 표준화 관련 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된 협의체이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9차 ASTAP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및 회원사 등 총 120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K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서 참가했다.

이번 19차 회의에서는 ICT&기후변화, 재난통신, 정보통신접근성 등 주요 기술분야 및 작업방법, 규제이슈 등에 대한 아태지역 표준화 활동 공유와 재난관리 통신시스템(DMCS) 관련 개정작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2년 WTSA-12 APT 2차 준비회의가 열려 WTSA-12에 대응하는 APT 공동 기고서 후보 선정과 이슈정리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2. 주요회의 내용

2.1 ICT&기후변화 작업반 활동

ICT&기후변화 작업반은 2009년 마카오 ASTAP 16 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연구관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ICT&기후변화 작업반은 2010년 파타야 ASTAP 17차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ICT&기후변화 백서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19차 회의에서 예정대로 백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린 ICT 활동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Green ICT Activities)'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백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활용의 중요성 및 아태 지역 국가들의 정책과 계획,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ICT&기후변화 작업반은 각 APT 회원국과 협력하여 아태지역에서 ICT&기후변화 작업반의 차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APT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회원국의 답변을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 12건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여 아태지역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26개 연구 항목을 선정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로는 국가차원에서 ICT가 영향을 주는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후변화에 적용하기 위한 ICT의 활용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ICT&기후변화 작업반에서는 선택된 연구항목에 대해 차기 회의부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향후 회원국의 기고서를 바탕으로 각 연구 아 이템에 대한 2페이지 이내의 요약소개와 실천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트위터, 이메일,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과 회의의 기간 중 작업반 워크숍 개최, 정보 문서의 회람,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방법을 통해 수행하기로 했다.

2.2 스마트그리드 작업반 신설 및 활동

지난 18차 회의에서 신설된 스마트그리드 작업반은 일본 NTT의 Hideo Imanaka를 의장으로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첫 회의라 중국과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기술현황과 ITU-T에서의 국제표준화 동향이 소개되었다.

일본은 자국의 스마트그리드와 M2M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서비스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으로 인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음을 발표했다. 또한, M2M을 스마트그리드와 접목하여 일본에서 시행되는 여러 시범 서비스를 소개했다. 중국은 내륙지역의 전력 부족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차기 연구과제로 APT 회원국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백서작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APT 회원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준비하여 회람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금년에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없었으며, 차기 회의에는 한국의 스마

트그리드 기술현황과 표준화 활동 등의 소개와 아울러 백서 작업에도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 재난통신 작업반 활동

재난통신 작업반에서는 조기경고 및 재난 구조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권고(DMCS)에 대한 개정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6년 일본은 조기경고 및 재난 구조 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을 자국의 기술을 반영하여 APT 권고로 제정하였으며, 이후 2008년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규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제17차 ASTAP 회의에서 개정안이 마련하였으나, APT 무선표준화 포럼(AWF)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2011년 제18차 ASTAP 회의에서는 AWF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 검토가 진행되었고, 기존 문서를 권고와 보고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권고는 기술적인 사항을 삭제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였고, 보고서는 기존 권고에 있던 기술적 상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제19차 ASTAP 회의에서는 권고에 대한 AWG-11의 협력문서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수정안을 작성, 총회에서 재 승인을 얻었다. 이후 APT 회원국의 투표를 진행한 후 금년 11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관리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정안의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4 2012년 ITU-T 총회(WTSA) APT 2차 준비회의

2012년 WTSA에 대비, APT 회원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2차 준비회의가 ASTAP 회의와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WTSA-12 APT 준비회의를 위한 대응반의 해당 라포처 및 부라포처의 선임이 완료되었으며, WTSA-12에 제출될 APT 공동제안 후보선정 및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음 소개되는 APT 공

동제안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가 이메일 토의를 11월 중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WTSA-12 제출 APT 공동제안 후보〉


- Revision of ITU-T Recommendation A.7(KDDI, 일본 제안): ITU-T 포커스 그룹 운영 관련 권고 A.7의 개정을 공동제안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TSAG의 논의 결과를 검토하여, 차기 준비회의에서 필요시 동 사항에 대한 수정 제안을 WTSA에 공동기고서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 Issues regarding PP-10 결의 178(한국 제안): PP-10 결의 178, 개도국 인터넷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U가 기술적인 논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결의하였으나, ITU-T 자문회의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어 아태지역 차원에서 공통 이슈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태국, 몽골의 지지로 공동제안 후보로 선정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Consideration on the Revision of ITU-T Recommendation E.161(한국 제안): 한글자판 국제 표준화를 위해 ITU-T E.161 국제표준을 개정하자는 제안이며, 많은 논의 끝에 기술적인 측면은 ITU-T SG2에서 다루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WTSA-12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지를 받아 공동제안 후보로 선정되었다.
- Issues regarding Standardization Framework of ITU-T(일본 제안): ITU-T 현재 체계(Focus Gro-ups, Global Standards Initiatives, Joint Coordination Activities)에 대한 효율성, 전자회의 활용, 연구반수 감소 관련 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공동제안 후보로 선정되었다.
- Standardization in the area of Cloud Computing(인터넷 관련 기술 전문가그룹 제안): 사실표준화기구(de-facto)들과 공식표준화기구(de-jure)들 간에 중복성 방지를 위해 ITU-T 및 ISO/IEC JTC

1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현황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 Issue paper of CG3 on Issues for Developing Countries (제3대응반 의장 제안): 개도국과 선진국 간 표준화 격차해소 방안, ICT 서비스 접근성 증진, 기타 개도국별로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기술적, 정책적 고려사항과 상황을 반영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 WTSA-12에 공동제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 A proposal to update the WTSA Resolution 73(한국 제안): PP-10 결의 182와 ITU-T SG5의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결의 73의 현행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였다. 대응반에서 ITU-T SG5 활동 결과와 기타 심포지엄 활동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각국의 지지로 공동제안 후보로 결정되었다.
- Indonesia Thoughts on ccTLDs(인도네시아 제안): 인터넷 도메인 체계에 대해 모범사례 개발 및 DNS 격차 해소방법 제안에 관한 내용이 공동제안 후보로 결정되었다.

3. 맺음말

ASTAP은 ITU-T 이슈, ICT&기후변화, 클라우드 컴퓨팅, NGN,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웹 등 ICT 분야의 핵심이 되는 기술과 정책, 규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 ASTAP에서는 지역 표준을 제정하기 보다는 개도국에 새로운 기술, 최신의 표준화 정보의 공유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TSAG, WTSA 등 상위 레벨의 국제 표준 활동을 위한 지역적 협력 유도를 하고 있다. 제2차 WTSA-12 APT 준비반 회의에서는 WTSA-12 회의에 대비한 APT 차원의 공동제안을 위한 후보제안이 선정되었으며, 각 대응반별로 주요 이슈보고서를 작성하여 WTSA-12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후보 공동제안 이슈에 대해서는 11월 중순부터 이메일을 통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3월(WTSA-12 제3차 준비

회의), 8월(WTSA-12 제4차 준비회의) 회의에서 작업의 진행과 새로운 공동제안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차기 회의는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18차 ASTAP 회의와 마찬가지로 WTSA-12 준비회의(제4차)와 함께 열리게 된다. 

정보통신 용어해설

스택 전략

Stack Strategy [관리운동]



운영 체제(OS)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SW 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춰 제품의 융합 및 매출 극대화를 꾀하는 전략.

스택 전략은 SW 제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SW 기업들의 인수 합병(M&A)이 추진되고 있다.

